

일상 1

삶터의 제자도

삶터

삶터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수고하고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등, 그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터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삶터는 하나님의 디자인

- 1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창세기1:1, 창세기 1:31, 디모데후서 4:4),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된 모든 세상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18-21

- 2 **삶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중에서 에덴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삶터를 창조하시어 그 곳에서 두시고 삶터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8-9

- 3 **일 (work):**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터의 첫번째 사명은 일, 노동이었으며, 일을 통하여 삶터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터에 주신 첫번째 삶의 터전은 일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15

4 가정 (family):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정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과 안식 가운데 (창세기 1:22-25)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삶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5 믿음 (faith): 하나님께서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6-17

우리의 삶터, 일터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고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터는 신앙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입니다.



삶터와 믿음

우리의 삶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먹고 마시고 주고 받고, 일하고 즐기는 일상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터와 신앙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삶터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돈과 성공과 명예 등 삶터에서 벌어지는 온갖 유혹 때문에 신앙을 공격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물기를 최소화하고 또 가능한 피해야 할 공간이 삶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터에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삶터의 커다란 실재 앞에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생활과 삶터에서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삶터에서 믿음은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자도의 본질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9-20, 개역개정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에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관계적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제자를 삼기 위한 수단으로 세가지의 관계적 명령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1 수평적 관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모든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수직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3 책임적 관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란, 단지 ‘지식의 전달’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책임지는 것을 동반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Q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 1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즉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2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 3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Q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눅 17:20-21)

- 1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 2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으로 구분 되지 않습니다.
- 3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삶터 사역의 비전



삶터 사역의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모든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나눔

1 나의 삶터:

각자 자신의 삶터를 소개해 주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이며, 그 곳에서 자신이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 등, 자신의 삶터의 모습을 소개해 주세요.

2 삶터의 비전:

삶터 사역을 시작하는 각자의 소망과 비전을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 삶터에 일어난 변화,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주세요.